

진격의 K-바이오

#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삼바, 대만 기업과 맞손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서비스 제공  
중화권 고객사 공격적 수주전략 펼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중인 대만 아프리노이아와 위탁개발(CDO)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중화권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프리노이아는 퇴행성 신경질환 진단을 위한 의료용 장비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대만의 바이오벤처로 알츠하이머 발병의 핵심원인으로 밝혀진 '타우' 단백질 표적 항체 개발의 선두주자이다.

타우는 뉴런 내 물질의 운반을 담당하는 단백질로, 축적과 변형을 통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더불어 알츠하이머와 중추신경계질환을 일으키는 핵심원인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아프리노이아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의 세프주 개발에서부터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 및 임상 시험계획(IND) 제출에 이르는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비임상 및 임상용 물질을 생산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아프리노이아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바탕으로 중화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수주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20여 개 이상의 중화권 고객사와 추가 계약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는 단일 공장에서 세프주와 공정 개발, 임상물질 소량 생산, 상업용 대량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위탁분석, 품질관리 등 바이



삼성바이오 3공장 바이오리액터홀.

오의약품 생산 전 과정의 일괄공급사슬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주에 이어 중화권까지 CDO 사업영역을 넓히고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등 글로벌 CDO 리더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은 "아프리노이아사와의 협업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춘 세계적 수준의 개발·생산역량으로 고객사의 제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는 현재까지 총 48건의 CDO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임상시험 승인신청, 라이선스 아웃 지원 등 바이오벤처들의 의약품 개발 가속화 및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le@metroseoul.co.kr

# 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쥬마' 美 암 시장 공략

셀트리온헬스케어, 파트너사 테바서 판매  
유럽 점유율 18%, 日 점유율 20% 기록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지난 16일(월) 유방암·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를 미국에 출시하며 판매에 본격 돌입했다.

'허쥬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북미파트너사인 테바를 통해 판매된다. 테바는 미국 내 항암 의약품 유통 네트워크와 판매 노하우를 갖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지난해 11월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미국에 런칭하며 순조롭게 판매를 확대해 가고 있다.

'허쥬마' 역시 '트룩시마' '벤데카' 등 테바에서 판매 중인 항암 의약품 유통 채널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공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트룩시마'와의 판매 시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항암제 처방 의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허쥬마'의 미국 처방 확대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북미지역의 트라스트주매파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시장으로 많은 제약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허쥬마'는 이미 글로벌 각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중 처방 1위를 기록하며 확보된 풍부한 처방데이터의 강점을 갖추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허쥬마'는 유럽에서 18%, 일본에서 2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각 지역별 트라스트주매파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가장 많은 처방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허쥬마'는 미국에서 도매가격(WAC) 기준 오리지널 대비 10%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실제 판매 가격은 추가적인 리베이트 및 할인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시된 WAC 가격과는 다르며, '허쥬마'를 처방 받는 환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 및 지원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테바의 북미사업 부문의장(부사장)인 브랜던 오그레이디는 "유방암 및 위암으로 고통받는 미국 환자들에게 '허쥬마' 런칭으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허쥬마'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미국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김형기 대표이사는 "미국 런칭 초기부터 트룩시마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같은 항암 의약품인 허쥬마 역시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 허쥬마 미국 런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램시마SC가 순차적으로 런칭되고 있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허쥬마'

/이세경 기자



## 코웨이 "봄철 미세먼지 의류청정 하세요"

'사계절 의류청정기 싱글케어' 출시

코웨이는 봄철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코웨이 사계절 의류청정기 싱글케어(FW-01·사진)'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사계절 의류청정기 싱글케어는 의류 관리와 의류 건조 기능을 모두 갖춰 봄철 의류 케어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의류 관리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3웨이 파워 블로잉 시스템을 적용해 옷의 겉과 안감에 묻은 미세먼지는 물론 냄새와 주름까지 케어한다. 3웨이 파워 블로잉 시스템은 코웨이 핵심 경쟁력인 에어 케어 기술을 적용한 파워 에어샷으로 옷의 큰 먼지를 털어내

고, 에어샷 옷걸이에서 분사되는 강력한 공기로 안감의 먼지까지 털어낸다.

두 번째 단계는 미세한 나노 미스트를 옷에 분사해 옷감에 흡수된 미세먼지가 잔여 먼지와 냄새 입자를 씻어내며 살균한다. 세 번째 단계는 옷을 저온에서 빠르게 건조시켜 섬세한 소재의 옷도 옷감 손상 없이 언제나 뽀송하게 관리하며 의류 관리를 마무리한다. 네 번째 단계는 다시 한번 3웨이 파워 블로잉 시스템이 작동해서 내부에 남은 먼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며 의류 관리를 마무리한다.

사계절 의류청정기 싱글케어(FW-01)는 렌탈 구매 시(등록비 10만원 기준) 월 3만 9900원, 일시불 가격은 198만 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LG하우시스, 美 '엔지니어드 스톤' 완공

본격가동 시작... 북미시장 공략

LG하우시스가 미국 '엔지니어드 스톤' 생산라인 증설을 끝내고 북미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엔지니어드 스톤이란 천연 석영계 재료를 약 90% 함유한 프리미엄 인조대리석 제품으로 외관은 천연 대리석과 같지만 가공성·내구성 등이 뛰어나 주방가구, 세면대, 식탁, 호텔·병원 등 상업용 시설의 각종 안내 데스크 및 카운터, 벽체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

치한 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공장에 총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엔지니어드 스톤 3호 생산라인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완공된 3호 생산라인에선 연간 35만㎡ 규모의 엔지니어드 스톤을 생산한다. 이에 따라 LG하우시스의 엔지니어드 스톤 총 생산규모는 기존(70만㎡)보다 50% 늘어난 105만㎡로 늘어나게 됐다.

LG하우시스는 신규 3호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엔지니어드 스톤 제품을 북미 전역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

난 2월말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새롭게 연 전시장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도 돌입했다.

또한, 신규 3호 생산라인에 로봇 설비를 도입해 기존보다 더 천연석에 가까운 디자인과 색상을 구현, 한층 더 높은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현지 건축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LG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 미국에 엔지니어드 스톤 공장을 설립한 이후 '비아테라(Viatera)' 브랜드로 북미 시장을 공략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코센티노, 이스라엘 씨저스톤, 미국 캠브리아에 이어 시장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시몬스 '뷰티레스트 1870' 팝업스토어

갤러리아 압구정점서 26일까지

시몬스는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 압구정점에서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뷰티레스트 1870' 한정판 매트리스를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갤러리아 명품관 웨스트(WEST) 5층에 마련한 팝업스토어는 이달 26일까지 운영한다.

'뷰티레스트 1870' 매트리스는 올해 시몬스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맞아

1870개 한정수량으로 제작됐다. 시몬스의 핵심 기술인 포켓스프링, 내장재뿐만 아니라 1900년대 시몬스 매트리스 원단의 패턴, 색상, 감촉 등을 재해석했다.

특히 한국 시몬스의 최상위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에만 사용되는 삼중 나선 구조의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을 통해 한층 탁월한 지지력을 자랑한다. 뷰티레스트 컬렉션 중 유일하게 소프트한 면과 단단한 면 두 가지로 구성돼 양면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라지 킹과 킹 오브 킹의 대형 사이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측면의 매트리스를 숨쉬게 하는 에어홀에는 브랜드 150주년을 기념하는 고유 마크를 넣어 소장가치를 더했다.

/김승호 기자